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76

용광로에 들어간

세 친구

(다니엘 3:1~30)

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 
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세계 최고의 왕이 됐어요.  
주변 지역들을 하나하나 정복해서  
자기 나라로 만들었죠.  
두려운 것이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 
점점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.

“하하하! 여보라! 지금껏 이 땅에  
나와 같은 업적을 세운 왕이 있더냐?”

“그럴 리가 있사옵니까.  
왕이시야말로 역사상 가장  
위대하신 분이옵니다.”



**“하하. 네 말이 맞다.  
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 
금으로 내 모습을 딴 신상을 세우는 게 어떨겠느냐?  
모두가 그 앞에서 절을 할 수 있게 말이다.”**

**왕의 명령에 따라 ‘두라’라는 평지 위에  
신상이 세워졌어요.  
높이가 27m, 넓이가 2.7m나 되는 거대한  
신상이었고 온통 금으로 만들어졌죠.**

**평지 부근을 지나는 사람 누구나 왕의 모습을 딴  
신상을 볼 수 있었어요.  
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로니아의 모든 관리들을  
신상 앞으로 모이게 했죠.**

그중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었어요.  
세 친구는 ‘하나냐’, ‘미사엘’, ‘아사랴’라는  
이름 대신에 바빌로니아 식 이름인  
‘사드락’, ‘메삭’, ‘아벳느고’로 불리고 있었죠.

**“자, 다들 모였구만. 흠흠! 왕의 명령이니  
지금부터 잘들 들으시오!  
이제 곧 나팔, 피리, 하프, 가야금..  
온갖 악기들이 울려 퍼지면!  
여기 있는 모두가, 왕께서 세우신 황금 신상 앞에  
엎드려 절을 해야 하오.  
혹시라도, 절을 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 
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 
알아서 잘들 할 거라 믿소! 흠!”**

곧이어 요란한 소리로 악기들이 연주되고  
모두가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.

단 세 사람, 다니엘의 친구들만 빼고 말이죠!

신상 앞에 절을 하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 
큰 죄였기 때문에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.

“아니! 저자들은 왜 엎드리지 않는 것인가?  
지, 지금 저들이 일부러 안 하는 게 맞소?”



**“그런 모양이오. 노예 신분인 주제에  
관리 노릇을 할 때부터 건방진 자들이었소.  
이건 우리의 왕을, 명백히 무시하는 행동이오!”**

화가 난 몇몇 신하들이 즉시 왕에게 찾아갔어요.

**“왕이시여! 남유다 출신 사드락과 메삭, 아벳느고가,  
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디다요!  
왕의 명령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디다!”**

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 
기억하고 있었어요.

전에 남유다 청년들을 교육시킬 때도  
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었고, 관리가 된 이후로도  
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냈으니가요.

왕은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고  
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.

**“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. 너희가 새로 세운 신상 앞에  
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야?**

**혹 너희가 실수를 했다면 이제라도 가서 절을 하라.  
그러지 않으면, 너희를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.”**

하지만 세 친구는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.

**“폐하, 저희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길  
바란 것이 아니옵니다.  
몇 번을 기회를 주셔도 저희의 답은 같을 테니까요.”**

**“그렇습니다. 폐하. 저희가 용광로 속에  
던져진다 해도,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 
저희를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.”**



**“맞습니다. 설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지  
않으신다 해도 저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이니  
그리 알아주십시오.”**

**세 친구의 당당한 모습에 왕의 얼굴빛이  
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 
누가 봐도 잔뜩 화가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.**

**“내 친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거늘, 너희들이 감히  
나를 모욕하는구나! 오냐, 너희의 소원대로 해주겠다.  
여보라! 용광로의 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  
더 뜨겁게 달구거라!”**

쇠도 녹일 수 있는 용광로 안이 그 어느 때보다  
뜨겁게 타올랐어요.

용광로 근처만 가도 순식간에 땀이 흐를 만큼요.

왕의 군대에서 가장 힘센 군사들이 세 친구를  
밧줄로 꿰뚫어 묶기 시작했지만  
세 친구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.

한 걸음, 한 걸음, 뜨거운 용광로로 끌려가면서도  
셋은 침착한 표정이었죠.

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실 거라는 걸  
믿고 있었으니까요!

**“저 반역자들을 집어넣거라!”**

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순간  
갑자기 불꽃이 휩 하고 타오르더니  
세 친구를 끌고 간 군사들을 덮쳐버렸어요.  
힘센 군사들이 순식간에 불에 타 죽고 말았죠.

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였어요.  
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이  
태연하게 불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!  
그들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마저 다 타버렸지만  
세 사람은 태연하게 서 있었어요.  
그리고 갑자기, 느부갓네살 왕의 눈동자가  
커지기 시작했어요!



**“아, 아니 이럴 수가! 여보라  
방금 용광로에 집어넣은 자들이  
세 명이 아니었더냐?”**

**“예, 예, 분명 세 명이 맞습니다요.”**

**“그런데 저기를 보아라!  
불 속에 네 사람이 있지 않느냐!  
아무리 봐도 네 사람이다, 상처 하나 없이  
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단 말이다!  
오... 저 네 번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 
아들처럼 보이는구나.”**

**그제야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.**

세 사람이 말한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걸  
이제는 믿을 수 있었던 거죠.

**“그만 그만! 이제 그만 밖으로 나오거라!  
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는다.  
그만 나오거라!”**

그러자 세 친구가, 용광로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.  
놀란 신하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 
세 사람은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은 채  
멀쩡하게 서 있었죠.  
옷에서도 타는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!

오직 튼튼한 밧줄만이 불에 타 사라져 버렸을 뿐이었죠.  
그 때 느부갓네살 왕이  
신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.

“모두들 사드락과 메삭,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.  
세 사람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 
저들의 하나님에게 순종했으며  
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구해내셨노라.”



**“이제 내가 명령하노니, 이 나라 그 누구라도  
저들의 하나님에 대해  
함부로 말한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.  
세상에 불에 들어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 
신이 또 어디 있단 말이나...!”**

**왕의 신하들 중 누구도,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.  
직접 기적을 보았으니까요.  
이제는 아무도 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.  
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, 용감한 세 친구에게  
더 높은 직위까지 내려주었습니다!**